파 수 꾼

(이사야 62:1-7)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언약을 잡고, 말씀을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란다.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 우리 인생의 결론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날이다. 이스라엘은 세절기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설명하고, 삶을 설명하셨다. 그때는 책이 없었기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다.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다. 영원까지 가는 망대 같은 언약이다. 오순절은 오늘이고, 지금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여정을 이야기 한다. 수장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다. 영원히 가야 할 이정표이다. 출 23;16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수고하여 거둘 첫 열매니라. 성경에 맥추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이 맥추절은 시작은 닛산월 정월 14일 유월절 지난 후 첫 안식일 다음날이다 그때 첫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요제).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다. 신명기 16:9 일곱 주를 세라고 하셨다. 유월절인 1월14일, 그때가 이미 보리를 거두는 때이다. 유대인 달력으로 닛산월, 정월, 곧 첫째 달이다. 그것이 우리가 쓰는 달력인 태양력으로는 4월달이다. 그때가 보리가 익는 때이다. 첫 열매를 드리는 때가 유월절 지키는 그 주간 안식일 첫날에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 첫날 예배드리는 초실절 이후 50일이 오순절이라고 한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고, 약속의 피 제사로 드린다. 이것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첫 이삭을 거두는 날이다. 사도행전 2:1 이날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다. 이 첫 열매를 위하여 거두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맥추절이란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다. 한 첫 열매이기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날이 이르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답이 나왔다. 성령님은 이 첫 열매들을 거두러 오신 것이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이것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이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언약의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확인을 해야 한다. 첫째는 성령이 임한 것은 약속의 성취이다. 그냥 온 게 아니고 구약에 말했던 그날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1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 말한 것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약속한 그날이 성령이 오셔서 첫 열매를 거두기로 약속한 그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기록한 것이다.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과거에 기록 된대로 보면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그다음에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다. 이분들은 그냥 와서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놀러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려고 온 것이다. 맥추절에 이미 이야기하셨다. 첫 열매들을 거두러 오셨다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지난주에 다민족 예배 때 본 말씀인데, 요 16:13절 말씀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라고 하셨다. 이 그는 성령님을 말한다. 14절 좀 더 확실하게 써놓았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그는 성령님이고, 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다른 것 안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한 것을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하셨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것과 그의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오셨다.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리이기에 그것만 증거하신다고 하셨다. 언약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성령을 언약보다, 복음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강조할 때가 있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언약이다. 그런데, 성령 자체를 더 강조해버리면 종교이다. 종교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한 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이다. 성령 충만하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다. 절대적인 것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는 경우도 능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불신앙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불신앙을 해도 언약을 성취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예가 많다. 요나는 아예 도망을 갔다. 오순절에 기록된 것은 오직 약속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일어났다. 그 약속의 첫 열매였기에 그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이날을 시작한다는 선언이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강림이다.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았던 사명자들이다. 이것이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언약을 잡으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다.

1.파수꾼

파수꾼은 지키는 것이다. 언약으로 지키고, 언약 잡은 기도로 지킨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파수꾼이 진짜 파수꾼이다. 오늘도 귀중한 많은 약속들을 하셨다. 1절 나는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에 횃불같이 나오고, 나는 너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으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뜻이다.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부르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네 이름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언약을 누리면 그렇게 된다. 말씀 따라 현장 가면 정복하게 되어있다. 항상 승리하게 되어있다. 무조건 정복하게 된다. 지는 법은 절대 없다. 한 가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걸려있다. 인생이 이렇게 되면 왕관을 쓴 것처럼 내 인생이 이제 작품이 능히 된다. 나는 왕이다, 이 말이다. 나는 현장을 정복한 왕이야, 나는 내 인생을 정복한 내 인생의 왕이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의 공격하는 뱀의 대가리를 깨는 나는 왕이야. 말씀을 따라가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복음은 간단하다. 누리는 것도 간단하다.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고, 결과를 보는 것도 간단하다. 아예 끝났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기도 안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된다. 불신앙해도 말씀 성취된다. 기도가 붙으면 더 크게 성취된다. 가기 전에 정복이다. 그게 기도의 세계이다 기도 안에 있는 언약이다. 왜 못하겠냐 이 말이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절대적이고, 방해하는 것은 죽게 된다. 내가 너에게 왕관을 주겠다. 4절에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네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는 이유는 상황을 뒤집을 것이다. 오직 너는 나의 기쁨이다(헵시바), 결혼한 여자다(쁄라)라는 말이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시간표가 온 것이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5절 청년이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같이 내가 너를 보고,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너무나 귀중한 축복을 해주셨다. 믿으면 된다.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약속을 하셨다. 그게 6절이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늘 기억한다는 말이다. 그냥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7절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잘하고, 못 하는게 없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를 방해하는 뱀의 대가리가 즉시로 깨져버린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즉시로. 만일 내게 평생의 말씀이 들어오면 평생 뱀의 대라리는 깨진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부 시대를 정복할 정도로 쓰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게 하라.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시니까 내게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널 항상 지키겠다, 파수꾼, 내가 네 가정을 지킬 파수꾼을 네게 파송하겠다. 내가 네 사는 곳, 네 동네 지역, 예루살렘을 지킬 파수꾼을 보내겠다. 네 인생과 네 날을 지킬 나의 파수꾼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도 이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절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이다. 나는 에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니 기도하고, 언약을 잡고, 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그때 네가 상상치 못할 응답을 줄 것이다. 내 파수꾼을 성벽에 세우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므로 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언약은 완성이 되었기에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도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라는 것이다. 기도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마음은 분명히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이 영적 문제이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존재가 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항상 기도할 것인데, 내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를 정도로 속고 있다. 만일 우리가 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 네 문제를 위해 네 인생을 위해 잠잠히 있지 않아, 늘 싸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사도바울과 같은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행하면 사도바울과 같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파수꾼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라.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표본이다. 그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한 사람들, 약속한 그날에 전부 되어졌다. 아무리 사명자라도 그들 스스로 성령님을 올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다. 약속하신 그날, 행하신 그날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날 보내신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했고, 약속하신 그날에 오신 것이다. 그들의 목적과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의미한다. 이분들은 표본이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다.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 성취의 조건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그들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이다. 이 한 첫 열매들을 거두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므로 약속대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 것이다. 이 조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는 손도 못 댄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두 번째 조건인 세계 복음화는 결과이기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한 가지 조건,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수 있다. 말씀을 받으면 자동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언약으로 받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된 응답이 나타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모세가 말씀을 받고, 광야로 들어갔다. 응답의 연속이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다. 전부 다 그렇다. 조건은 말씀을 가졌냐? 이것이 출발이다. 출발 된 분은 응답을 볼 것이다. 출발 안 된 분은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준비된 응답과 예비 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새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을 가진 자이다. 작품이다. 나는 인생에 대하여 답을 가진 사람이다. 이 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마가 다락방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사는 길이다. 그러면 말씀처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본다. 그 결과의 증거를 보는데, 세계 복음화이다. 이 세계 복음화가 인생의 작품이고, 후대에게 남길 기념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크던 작던 7포인트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을 가졌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일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에 무슨 일 있다고 해서 흐지부지 할 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변질이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지금 새출발을 하려고 한다. 성경적 전도를 해야 하기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먼저 은혜받고, 힘을 얻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를 두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할 일이 보인다. 갈급한 자가 많이 있다. 격려하고, 살리라. 충성된 자도 있으니 찾아서 함께 팀이 되라. 사명자 많이 있다. 키워야 하고, 함께 커야 한다. 이 새로운 출발에 다 동참하여 성경에 응답을 받으시라.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과 남미에 역사를 다시 쓰는 안디옥교회가 될 것이다. 위하여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모두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말씀이 들어오면 다 된다.